

Over the Venture

‘제2 벤처 붐’을 맞이하면서

글 _ 박봉수 (기술신용보증기금 이사장)

지난 15일 코스닥종합지수가 마침내 500선을 회복했다. 이는 지난 2003년 9월 3일 505포인트를 기록한 이래 실로 17개월 만에 이룬 감격적인 사건이 아닐 수 없다. 2000년 3월 10일 벤처의 저력은 코스닥지수를 한때 2925포인트까지 끌어 올렸었다. 이후 벤처 거품론 대두와 함께 닷컴기업을 중심으로 나스닥 주가하락이 시작되면서 코스닥지수는 급기야 작년 8월 320포인트까지 밀리기도 했다. 하지만 다행히 최근 들어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대안으로 벤처에 대한 인식이 새롭게 부각되면서 정부의 ‘벤처 활성화 대책’이 촉매제가 되어 코스닥지수는 U턴을 하게된 것이다.

그러나 본격적인 제2의 벤처 붐을 맞이 위해서는 벤처인 모두가 지난날을 거울삼아 심기일전하는 자세를 지녀야할 것이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 벤처인 모두는 벤처 고유의 ‘벤처정신’을 되찾아야 한다. 벤처는 어려운 여건 하에서 성공을 이루어 내는 기업이다. 기본적으로 고위험·고수의 사업이며, 장기적인 투자와 인내를 필요로 한다. 따라서 최근 일련의 시련은 오히려 벤처의 체질을 강화하고 투명성도 높이는 좋은 계기가 되어 줄 것이다.

이제부터라도 벤처는 기술개발, 수익모델 창출, 원만한 조직운영, 사회 환원 등에서 모범을 보여 그동안 일부 벤처인이 보였던 머니게임, 반기업행위 등 사회 경제적으로 비난받던 도덕적 해이로 인해 실추된 신뢰를 하루빨리 회복시켜야 한다. 또한 벤처가 우리 경제에 안정적으로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인프라를 조성하되, 창의성과 역동성을 갖춘 벤처인들이 배출될 수 있는 유리적 토양 구축에 우선적으로 힘써야 할 것이다.

그동안 벤처기업 전담지원 기관으로서 벤처기업 육성을 위해 매진해온 기술신용보증기금은 앞으로도 벤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다. 다만 지원방식에 있어서는 지난날과는 달리 공급자 위주의 일회성 지원에서 벗어나 건전한 벤처 생태계를 뒷받침하는 차원에서, 선택과 집중이 이루어지도록 할 것이다. 또,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혁신형 벤처를 발굴·지원하여 우리 경제의 당면 목표인 활력 회복과 일자리 창출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다시 붐이 왔다. 벤처인 모두 초심으로 돌아가 모처럼 찾아온 파스한 봄기운을 오묘으로 맞이하자.